

노벨평화상 마차도 “변장·목선→비행기” 오슬로 도착

베네수엘라 탈출, 비밀 네트워크 관여...美 전투기 등 염호
지지자들에 손흔들며 11개월만 공식석상...기자회견 예정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여)가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 11일(현지시간) 새벽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전날 밤 오슬로에 도착, 이날 새벽 한 호텔에서 공개석상에 섰다. 지난 1월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 이후 11개월만의 공개 행보다.
청바지에 패딩 점퍼 차림인 그는 발코니에 서

서 호텔 앞에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어 잠시 호텔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포옹을 나눴고, 베네수엘라 국가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
마차도는 “여러분 모두 베네수엘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자유! 자유!”를 외쳤고, “대통령! 대통령!”을 연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마차도는 자국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당국의



11일(현지시간) 새벽 노르웨이 오슬로 그랜드 호텔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구금 위협으로 모처에 몸을 숨긴 채 주로 온라인 활동을 해왔다.
그는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베네수엘라 은신처에서 빠져나와 미국의 엄호 속에 오슬로로 향했지만 악천후로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시상식에는 그의 딸인 아나 코리사 소사 마차도(34)가 대신 참석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소사 마차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어머니의 활동을 돕고 있다.
마차도는 시상식 직전 공개된 노벨위원회와 의 통화에서 시상식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지

만, 자신의 오슬로행을 위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중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마차도의 베네수엘라 탈출 과정은 극비리 진행됐으며 상당히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그는 가발을 동원해 변장하고, 10개가 넘는 군 검문소를 뚫은 뒤 목선을 타고 카리브해를 건너 네덜란드 퀴라소로 향했다. 이후 전용기를 타고 노르웨이로 왔다.
이 과정에 비밀 네트워크가 관여해 약 두달간 준비했으며, 미군도 그의 여정을 알고 F-18 전투기 등으로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소아 의료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 시위 1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마요 광장에서 가라한 병원 의료진과 장애인 인권 옹호자들이 소아 의료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한 여성이 촛불을 들고 있다. /REUTERS=연합뉴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연안 유조선 억류...최대 규모”

베네수 연안 美항모 전단 등 배치
美-베네수 무력충돌 위기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 억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알겠지만,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억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형 유조선이다. 매우 크다. 사실, 억류한 유조선 중 사상 최대 규모”라며 “다른 일들도 진행 중이며, 나중에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조선 억류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유조선 억류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이 나라 인근 카리브해에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 등을 배치하며 양국간 무력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해군 소속 전투기 2대가 지난 8일 베네수엘라 남부 카리브해 상공을 비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군사력 시위는 마약 카르텔뿐 아니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축출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대한 질의에 “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40만년전 인류 불 피운 흔적 찾았다

영연구진, 발굴 결과 네이처 발표
기존 ‘점화’ 사례보다 35만년 앞서

인류의 본격적인 불 사용이 약 40만년 전에 시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에 ‘점화’가 확인된 최고(最古) 사례인 약 5만년 전보다 35만년이나 앞선 시점이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박물관 고고학자 롭 데이비스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영국 동부 서퍽의 구석기 시대 유적지 바넘에서 약 40만년 전 초기 인류가 직접 불을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흔적을 확인했다.
인류가 자연적인 불을 100만여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인위적 점화’가 명확히 확인된 가장 이른 사례는 5만년 전 북프랑스 유적지에서 나왔다.
연구진은 바넘에서 불에 그을린 지층, 열에 의해 깨진 손도끼, 부싯돌에 부딪히면 불꽃을 일으키는 황철석 조각 등을 찾아냈다.
이후 4년간의 지구화학 분석을 통해 700도 이상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피워진 흔적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를 자연 발화가 아니라 사람에 의해 여러 차례 사용된 모닥불 또는 화덕의 증거로 해석했다.
황철석은 당시 바넘 지역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광물이다.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당시 거주했던 이들이 황철석을 불쏘시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운 불의 흔적은 보통은 잘 남지 않지만, 바넘에서는 불에 탄 퇴적물이

고대 연못 퇴적층에 파묻혀 보존돼 연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번 연구에 대해 “그 함의가 엄청나다”며 “불을 만들고 통제하는 능력은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발견은 언어의 등장,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불은 초기 인류에 빛과 온기를 제공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해 뇌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 확보를 가능하게 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생활도 가능케 했다. 저녁에 불 주변에 모여 앉아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관계를 강화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언어 발달과 조직적 사회 출현의 기반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일방적 감축 견제’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된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